

#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 우리나라 중세 수의학의 원형

천명선 / (주)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아, 병어리인지라 말을 못하니, 의원 된 사람은 유심하여 자세히 알아야 한다  
(嗚呼瘡痍不能言醫者留心仔細認)”

우리나라 고대와 중세 수학을 논하자면 우선 걱정이 앞선다. 충분한 자료도 없거니와 얼마 없는 자료들을 서로 인용한 탓에 연구자료에서 새로운 견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행스럽게도 ‘수의학역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시영선생과 김병성선생 같은 분들께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덕에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힌 듯하다. 전통 의학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중세 수의학도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중국에서 출간된 수의학 서적들이 국내로 수입되었으며, 조공으로 바치는 말을 검사하러 중국과 몽고의 마의들이 다녀간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직접 수의술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그 지식을 전수 받았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수의술의 특별함을 찾아내는 것 못지 않게,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영향을 미친 외부의 흔적들을 밝혀 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 과정 속에 우리 전통 수의학이 어떻게 자리잡아 왔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고대 수의학의 흔적

희미하긴 하지만 고대 한국 수의학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자.

신석기 말기나 청동기 즈음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울타리에 둘러싸인 동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그림 1). 전형적인 ‘가축’ 사육의 광경이다. 한반도 내에서 동물이 실제로 ‘가축화’되었는지, 아니면 가축화 된 형태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초원을 통해 전해졌는지, 또한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도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중국에서 가축화된 동물이 유

적으로 발굴되는 시기 정도에 한반도에도 가축화된 동물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뿐이다. 하지만 동물고고학적 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나라에 삼국시대 이후에나 가축사육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림.1 울산 반구대 암각화, 탁본

강면희 선생이 1982년 ‘한국과학사회’에 발표한 요지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한국 고대 수의학은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랑이와 곰에게 마늘과 쑥을 ‘처방’ 했다는 것을 근거로 환웅을 상징적인 수의학의 시조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의술’이라 칭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은 삼국시대에 처음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삼국시대에 한자가 활발한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중국 서적들이 자유로이 수입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학 서적도 이 때 함께 한국에 소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중국에는 어떤 수의서적들이 있었을까? 중국 서적 목록인 수서 경적지(隋書 經籍志) '에 언급된 수의학서적이 있는 걸 보면 당시 이미 의학서적과는 독립적으로 수의학 서적이 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서적들 중 일부는 한자를 읽을 수 있었던 지식층에 의해 읽혀지고 연구되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의 종교적 근간이었던 불교를 바탕으로 한 수의학적인 지식이나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도 불요적 색채가 가미되었다. 따라서 당시 사회 엘리트 계급이었던 승려 계급에서 수의학이 발전한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이 당시 일본에 수의술을 전했던 고구려 승려 ‘혜자(惠慈, ?~622.2.5)’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인들은 그가 전해준 수의술을 ‘태자류(太子流)’라고 일컫고 이를 일본 수의학의 시조로 보고 있다. 그 이후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수의술과 수의서적은 지속적으로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최고(最古)의 마의학 서적 -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

고대 및 중세 수의학이 ‘말’을 주 대상으로 했었고, 수의 고전 역시 말에 대한 것이 절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의학 서적은 ‘매’에 관한 서적인 ‘응골방(1250년 경)’이다<sup>2)</sup>.

1) 중국의 정사인 ‘수서(隋書)’ 제 10권으로 서적 목록

2) 응골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고려말 '이조년(李兆年)' 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이 책은 대부분을 사냥매의 사양법과 질병의 치료에 할애하고 있다.

최고(最古)의 마의학(馬醫學) 서적은 1399년 발간된 '신편집성마의방 부 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 附 牛醫方)'。 조선시대에 발간된 다른 수의학 서적처럼 신편집성마의방도 직업 수의사가 아닌 '관료(官僚)' 들이 중국 서적을 참고로 '편집' 한 결과물이다. 고려시대 관제에 이미 '수의 박사(獸醫博士)', '마의(馬醫)' 등이 존재 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선시대에도 궁중에서 실제적인 수의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책을 편찬한 것은 조준을 비롯해 조선 신진 세력이며 학자인 김사형, 권중화, 한상교다. 실제 마의(馬醫)들이 편집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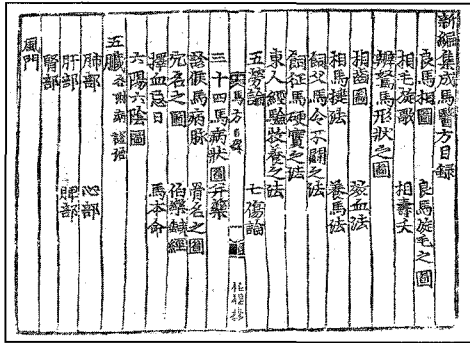


그림.2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 목차

없다. 신편집성마의방은 향약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sup>3)</sup>이 출판될 때 함께 출판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신편집성마의방의 발간시기가 약간 더 앞서는 등 다른 증거들을 들어 독립적으로 출간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주 편집진으로 조준과 김사형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같은 집필진들의 감독하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림 2)

신편집성마의방은 그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백락의 경을 날줄로 하고 원의 결을 씨줄로 하여 효험 있는 처방을 여러 책에서 가려 뽑고 동인이 경험한 의술을 채택하여' 편찬된 책이다. 그렇다면 그 '백락의 경'과 '원의 결'은 어떤 책일까? 지금까지 발표된 바와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이석(李石)이 당나라 때 발간하고 시대를 거둬 하며 수의학 지식을 덧붙여간 '사목안기집(司牧安驥集)' 이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른다. 조선시대 마의(馬醫)들의 수험서로 쓰였다는 이 책은 원본 그대로 수입되고 배포도 되었다. 15세기 중반 경에 증간(增刊)된 '사목안기집' 본을 보면 '36 기와병원가(三十六起臥病源歌)' 등 신편집성마의방에 수록된 대부분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신편집성마의방에는 이 부분에서 34개의 질병만을 취했다<sup>4)</sup>. 맨 마지막 두 종의 질병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 것이 실수에 의한 누락인지, 아니면 마지막 두 질병이 흔하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 다른 한 권은 '전기통현론(痊驥通玄論)'이라 해서 13세기 출간된 수의고전을

3) 보물 제1178호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기천박물관 소장), 고려시대까지의 향약을 집대성한 전통의학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4) 34 마병상도병약(三十四馬病狀圖并藥)

들고 있지만, 이 역시 사목안기집의 다른 변형이 아니었을까 의심해본다. 이 책의 재미있는 부분은 ‘동인경험방(東人經驗方)’이다. 치료법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동인경험방은 ‘동인(東人)’ 즉,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개발하거나 이미 쓰고 있었던 수의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 같은 이름의 향약서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전해지지는 않는다.

외과를 등한시 했던 전통의학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신편집성마의방에서 다루고 있는 질병은 대개 내과 질병이다. 하지만 말의 파행이나 외상의 치료 등 수의사가 임상에서 쉽게 접하는 질병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주로 산통을 다루고 있지만, ‘34 마병상도병약(三十四馬病狀圖并藥)’에서는 뇌염이나 제염염 등 다양한 질병을 읽어낼 수 있다. 생생한 그림 설명은 현대의 수의사들이 보아도 그 특징을 잡아내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다. ‘아픈 곳을 가리키는’ 듯 배쪽을 돌아보는 말의 모습이나, 산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 벽을 향해 돌진 하는 모습 등 마치 표정을 가진 듯한 말의 모습이 감탄을 자아낸다. (그림 3)



그림 3 신편집성마의방의 삽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이 책에서 생식기계 질병이나 산과 질병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그 중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눈에 띈다.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 없는 부위’<sup>5)</sup>라는 언급이다. 아마 암말의 생식기를 뜻하는 것으로 짐작하지만, 점잖은 유학자님들이 위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민했을 상황을 상상하면 은근히 더 재미있다.

신편집성마의방에는 이미 체계화된 당시 전통수의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생리학이나 병리학 이론은 전적으로 전통 의학에서 비롯되었다. 오장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오장론’이나, 방혈의 생리학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방혈법’ 부분은 인의학에서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눈여겨 볼 것은 ‘백락 침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침술에 관한 지침 부분인데, 혈명도(그림 4)와 함께 혈자리를 찾는 방법, 침을 놓는 방법을 자세히 묘사해 놓았다. 전통수의학적 방법을 임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수의사들이 한번쯤은 읽어봐야 할 기본서로서 지금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아직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신편집성마의방에서 다루고 있는 처방전들도 전통약리학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말과 소가 해부학적으로 엄연히

5) 타파창(打破瘡)중 말의 화창(花瘡)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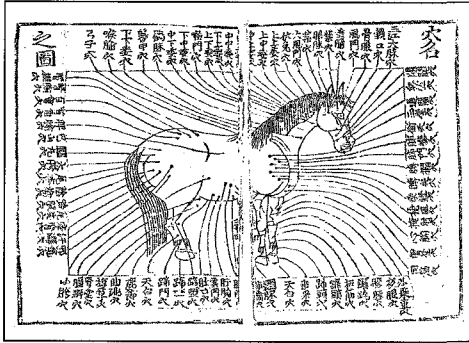


그림.4 신편집성마의방의 혈명도

차이가 있지만, 현대 수의학에서와 같은 해부학적 개념이 없었던 중세시대에 약을 투여하는데 있어 그 방법이 차별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신편집성마의방에만 150 여가지가 넘는 본초가 처방되었다. 각 장기(臟器) 별 질병에 대한 처방, 사소한 외과 처방까지 임상에 응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서두에서 인용해 놓은 것처럼 이 책을 편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원전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동물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다. '나 여기가 아프오' 라고 말을 못하는 동물의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 수의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처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도무지 낫기 힘든 병이니 수의사의 노고를 덜기 위해 치료를 중단하라' 등 당시 수의사들이 가졌던 진료상의 윤리의식도 엿볼 수 있어 고개가 끄덕여 진다.

'고전한국마의방전서(1976,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의학사(2004, 한국마사회)'를 통해 현대어로 풀이된 신편집성마의방을 접할 수 있다.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편집성마의방의 부분(附本)인 '우의방(牛醫方)'역시 '산업동물의 침구요법(1997)'에 현대어로 잘 풀이되어 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 이열치열의 피서법을 원하신다면 원전 해독에 한 번 도전해 보심은 어떠신지... **대수**

**〈참고서적〉**

- 강면희, 한국 수의학 창시자로서의 환웅천왕과 해자법사, 1982, 한국과학사회
- 신동원, 한국마의학사, 2004, 한국마사회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대한수의사회지(2000년~2003년)
- 남도영, 마경언해, 2004, 한국마사회
- 이시영, 한국마문화발달사, 1991, 한국마사회
- 신근철 역, 고전한국마의방전서, 1976, 한국마사회
- 윤병태, 조선의 마의서, 마사박물관지, 1999, 한국마사회
- 남치주, 산업동물의 침구요법, 1997, 광일문화사